뮤지컬 '고래의 아이' 서울 무대 통할까

고래와 만난 4·3 이야기
내달 1~2일 첫 도외 공연
제주 배우 조역 등 참여
쇼케이스 등 호평 이어
문예회관 레퍼토리 추진

제주 소재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제공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항공기 좌석 삼아 들뜬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을 태운 비행기가 제주로 향한다. 푸른 하늘을 날아 이윽고 닿은 제주엔 영등신이 몰고 온 바람 부는 바다와 고래가 있다. 그 위에 이 섬이 걸어온 역사가 포개진다.

지난 10일 저녁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의 창작 뮤지컬 '고래의 아이'(작·연출 김재한, 작곡 김경택)가 새롭게 관객들과 만났다. 지난해 10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두 번째 공연이었다.

이번에는 김경택이 지휘하는 연주팀의 라이브 음악을 더해 10~12일 총 5회 공연이 펼쳐졌다. 더블 캐스팅으로 두 팀을 꾸린 출연진 중에는 도 문화예술진흥원의 뮤지컬 아카데미를 거친 3명의 제주 배우도 포함돼 조역 등으로 참여했다.

이 작품은 2년 연속 문예회관 특성화 사업에 뽑힌 덕에 제작비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이를 활용해 매끄러운 장면 전환을 이끄는 슬라이딩 도어 등 세트를 보강했고 영상 디자인을 보완했다. 초연 당시 트라우마적 망상으로 전개했던 주인공의 행동은 현실 속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관객 반응을 반영해 대본 수정도 이뤄졌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가족 뮤지컬'을 표방한 영향인지 첫날 객석엔 보호자와 동행한 어린 관람객들이 적지 않았다. '나의 고래' '몽환' 등 15곡이 넘는 뮤지컬 넘버가 흐르는 이 작품은 중간중간 유머 코드를 넣어 70여 년 전 비극이 남긴 상처를 무겁지 않게 풀어냈다.

작품 제목에 쓰인 '아이'는 어린 아이면서 진실을 보는 눈(eye)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녔다. 극 중 고래를 부르는 능력을 가진 '고 선생'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할아버지와 12살 아이로 각각 등장한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제주4·3을 겪으며 끝내 살아남은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뎠을까. 자칫 상투적 상징물로 여겨질 동백을 꺼내지 않고 제주 바다와 오랜 세월 함께한 고래를 매개로 4·3이 전하는 말을 담아낸 이 작품에서 좀 더 섬세하게 그려야 할 대목일 것이다.

그간 제주에서 무료로 선보인 '고래의 아이'가 첫 도외 공연에 나선다. 8월 1~2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 제주4·3평화재단과 공동 주최해 제주4·3유족, 재외제주도민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출연진은 이달 제주 공연과 동일하다.

지난 6월 열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6 KOCACA 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시연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서울 유료 공연 무대에선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도 문화진흥원에서는 내년 4·3 주간 공연 등 '고래의 아이'를 다듬으며 문예회관의 대표 레퍼토리로 키울 계획이다. 김지영 도 문화예술진흥원 기획자는 "창작 작품이 완성도 있게 공연되려면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전국 투어 등 다른 지역 공연 유통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김만덕 아카데미**=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8~9월 1·2기로 나눠 무료 운영한다. 이정화 동양대학교 교수, 김오진 제주기후문화연구소 소장, 박찬식 역사학자,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 김만덕 연구, 제주 역사, 경제, 기후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해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환경·사회·경제·지역 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기수별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만덕기념관 누리집 참고.

▷**제주를 만든 사람들, 제주를 바꾼 시간들**=제주학연구센터가 기획한 제주도제 실시 80주년 특강. 제주 개척사와 발전사를 산업·문화·환경·공동체의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 제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수강 신청은 제주도민대학 누리집에서 선착순 진행.

▷**2026-2027 4·3미술 프로젝트 '청년사삼정감'**=4·3미술제조직위원회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청년 예술가, 연구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한반도 순례'. 국내 곳곳의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4·3을 동시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다시 바라보고 예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암태도 소작쟁의, 5·18민주화운동, 군산 수라갯벌, 대전형무소, 대추리 평화마을, 매향리, 민주화운동기념관, 서대문형무소 등을 순례한다. 또한 지역 예술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현장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고,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예술적·연구적 시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 '너무 늦지 않았다고…' 전시

장영의 '여백 01'. 모다드로 제공

무엇이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 그같은 위기가 불러올 각종 위험을 짚는 경고 대신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뭐든 해보자고 말하는 듯한 전시가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의 기획전이다.

이 전시엔 장영, 강연주, 유리, 이제용, 조나단 승준 리, 한희선, 흔적 김규리 등 7명이 출품했다. 폐그물, 폐합판 등 쓰다 버린 물건들과 자연에서 얻은 안료들이 이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이야기를 건넨다.

자연환경과 인간의 감각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 참여 작가들의 작업은 각각의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전시장 안에서 서로 이어진다. "지금이라도 괜찮다"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전시 서문의 문구처럼 벽, 바닥, 천장 등과 어울린 개별 작품들은 버려진 매체들과 연결되며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제주시 중앙로 돌담갤러리. 전시장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508>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꼴멘: "야으덜아,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씬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훈 디서 '어느 날 외출질'에 대훈 시 이왁을 ᄒᆞ여보켜."

어느 날 외출질

ᄃᆞᆫᄃᆞᆫ이 맨 옷골름 메듭추룩
역마술 잘 ᄌᆞᆼ그고 질을 나삿다
햇빛 창창ᄒᆞᆫ 날, 대문을 나사자마자
지드리고 잇던 나 굴메가 ᄃᆞᆯ라붙엇다

인생은 그자 굴메 ᄀᆞᆯᆮᆞᆫ 것
뒤돌아보민 굴메도 ᄀᆞᆯᆮᆞᆫ이 돌아볼 뿐
나가 봣던 것 ᄆᆞᆫ딱 굴메도 봐실 것

아모제고 나보단 앞산 가멍
뒷켠질은 돌아보들 못ᄒᆞᄂᆞᆫ 시간
오널은 그 시간신디 구애ᄒᆞᆯ 필요가 읏다
그걸 증명ᄒᆞ듯
주멩기에 젭져진 ᄒᆞ쏠ᄒᆞᆫ 술값은
거만시럽게 몸이 붉으고 잇다

좁작ᄒᆞᆫ 인도 우티를 무단점용ᄒᆞᆫ 민들레
시상을 봐져사 목심이렌 ᄒᆞᆫ 의미인 듯
요라 번 걲어진 모게기를 또시 세왓다
기여, 그 의미는 단정적으로 동감ᄒᆞᆫ다
그 뒤안질이 얼매나 적적ᄒᆞᆫ 중도 안다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ᄃᆞᆫᄃᆞᆫ이: 단단하게 *옷골름: 옷고름 *ᄌᆞᆼ그고: 잠그고
*질을 나삿다: 길을 나섰다 *지드리고 잇던: 기다리고 있던
*굴메: 그림자 *ᄃᆞᆯ라붙엇다: 달라붙었다
*ᄆᆞᆫ딱 굴메도 봐실 것: 모두 그림자도 봤을 것
*아모제고: 언제나 *뒷켠질: 뒤켠길
*돌아보들 못ᄒᆞᄂᆞᆫ: 돌아보지 못하는 *젭져진: 끼인
*ᄒᆞ쏠ᄒᆞᆫ: 악간의 *거만시럽게: 거만스럽게
*몸이 붉으고: 몸을 부풀리고 *좁작ᄒᆞᆫ: 비좁은
*기여: 그래 *적적ᄒᆞᆫ 중도: 쓸쓸한지도